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내장산 자연

휴양림 개장 전 시범운영

정읍시가 내장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는 용산동 산 50번지 일원 시유지 49ha에 산림휴양관 1동과 숲속의집 9동을 조성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숲속의집 2동과 오토캠핑장을 추가해 휴양림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입실 기준)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10월 이용분의 경우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11월 이용분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산림복지과 ☎063-539-577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종식시간 제외)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한시적으로 산림휴양관 1관원, 숲속의집 26명씩 3관원, 32명씩 5관원의 사용료(박 기준)를 받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웰파크 시티와 관광 산업 등 협약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웰파크시티가 18일 고창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고창웰파크시티와 연계한 관광 분야 협업사업 개발 △고창 관광객 유입 증가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마케팅 연계 추진 △고창군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의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반기 방장산 자연자원 활용 생태관광 행사 '바이오블리츠', 전 국민 대상 웰니스 및 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 관의 관광지 대상 연계 치유 행사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의 대표 웰니스 관광지인 웰파크시티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으로부터 "전북치유관광지"로 지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정읍시의회 임시회 통과... 소규모 창업 기회 확대 · 환경 규제 강화

정읍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소규모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9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세심히 고려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해진 점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

을 제외하면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의 휴게음식점이 허용된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건축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관광객 대상 휴게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비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도 함께 담겼다. 폐가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환경 위해 우려가 큰 시설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를 조정했다. 상업지역 내 숙박·위락시설에도 현실적인 거리 규정을 적용해 주민 건강권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률 위임사항을 정비해 사회복지와 보건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상위 법령을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당산제의 미래 무형유산 가치 발굴 학술대회 개최

부안 당산제의 전승 현황과 가치 · 활용 방안 발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문화원(원장 김영렬)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 당산제의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발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인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대표 문화자원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부안군은 2025년에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고유의 마을제인 '부안 당산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록화를 진행하며 그 가치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6편의 기조발표

및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기조발표는 △미래무형유산 사업의 취지와 목적(박종오 전남대 교수)을 시작으로, 주제발표는 △부안 당산제의 역사와 시대별 변화양상(서종원 한국민족예술연구원 교수) △부안 당산제의 지역별 전승 실태와 현황(이영수 인하대 교수) △부안 당산제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고유성(홍태한 전북대 교수) △부안 당산제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미래(김성식 전북대 교수) △부안 지역 축제마련의 보편성과 특수성(고대영 단정시청 학예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현재 부안 마을 곳곳에서 당산제를 전승하고 있는 보존회 관계자

들이 참석하여 부안 당산제와 관련한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학술대회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부안군청 일원에서 펼쳐지는 부안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하여 부안의 대표적인 당산제인 '부안을 내요리 돌모산 당산제' 재현행사가 이루어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전통 당산문화의 진면목을 선보일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부안 당산제를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 미래 무형유산으로서 안정적인 전승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선운산 꽃무릇, 이번 주말부터 28일까지 절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20일부터 약 열흘 가량이 꽃무릇 절정 시기를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운산 꽃무릇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로 꽃과 사할 경관 맑은 계곡이 조화를 이루어 걷기 좋은 산책길을 제공한다. 붉게 물든 꽃길을 따라 걸으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꽃무릇은 꽃과 잎이 서로 다른 시기에 피는 독특한 식물로 '만발' 수 없는 인연'을 상징한다. 붉게 물든 꽃발 속을 거닐면 누구나 로맨틱한 분위기와 함께 가을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주말(20~21일)에는 고창캠론



시식 · 판매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고창 펠론 페스티벌과 부활, 흥진영 등 초대 가수의 노래를 즐길 수 '제17회 산시음악회'도 열려 고창의 가을 매력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

다. 고창군 관계자는 "입장료 부담없이 선운산의 가을을 즐길 수 있으며, 주차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년 도예가들의 꿈을 담다’

부안군, 제1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 수상작 발표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청자박물관이 주관하는 제1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의 수상작이 최종 발표됐다.

이 공모전은 전국 최초로 대학생 청년 도예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안 상감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특색을 살린 도자작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1회 공모전에는 121건의 작품이 접수, 전문가들의 3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총 30건이 선정되었다.

그중 대상의 영예는 이성제(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작품 '청자 장난'이 차지하였다.

작가는 참외모양 청자 병의 겹질을 깎고, 사발 안에서 상감무늬가 흘러내리는 듯한 재미 요소를 넣은 장식 오브제로, 전통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에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여 작품에 시선을 오래 머무를 수 있게 의도하였다.



대상 이성제 '청자 장난'

이 작품은 전통 상감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창의성 있게 재해석하여, 도자기의 쓰임새와 미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 상감기법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통해 도자상품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이번 공모전의 중요한 목표였으며, 이를 통해 부안의 전통 도자문화가 새로운 창작의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황 · 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 열어

정읍시가 지황과 쌍화차를 주제로 한 '정읍 지황 · 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과 관광객 1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쌍화차거리(구 정읍경찰서 앞) 일원에서 열렸다. 정읍시를 비롯해 정읍지황농복합사업단, 전북과학대학교, 정읍쌍화차거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 주관했다.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정읍의 대표 특산물인 지황과 쌍화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꾸며졌다. 쌍화차 판매 및 체험 부스, '정읍쌍



화차' 5행시 공모, 참여 놀이마당이 열리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지황 쏘박을 기원하는 제례, 옹동여성농악단 공연, 디저트 경연대회 시상식, 즉석 장기자랑과 작은음악회 등 풍성한 무대가 마련돼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정읍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농번기 등 계절적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농가별 고용 가능 인원은 재배 작목과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미취학 아동을 안육하는 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9월 22일 열리는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절차 교육에 참석한 경우에는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배정 인원은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고용주로 선정된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